

# 사랑의 샘

2007



통권123호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mailto:echnw@hanmail.net)

#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새롭고 즐겁고 편안한 노년생활을 하세요♥



- ※주위환경 : 기독교 박물관, 농원과 초원, 산책로, 이천 설봉공원
- ※시설규모 : 연건평-567평, 5층 건물, 정원 50명
- ※대상자 : 중산층이하, 65세이상(기독교인 환영)
- ※입주비용 : 월 생활비 481,000원, 보증금 5,772,000원  
(특별 간병료는 30%까지 추가) - 2007년 기준
- ※입주자격과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나그린힐 (실비 노인요양시설)

467-852)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 031-631-1911~2 Fax. 631-1922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igh2005@hanmail.net](mailto:igh2005@hanmail.net)

# 2007년 사랑의 샘(가을호)

창간 1986. 2. 1



**표지설명** : 지난 7월24일~25일 이틀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3회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통 권** : 123호  
**발행인** : 한영재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7. 9. 18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b>주 소</b>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b>전 화</b> : 031) 632-1357	031) 631-1911
<b>팩 스</b> : 031) 633-0850	031) 631-1922
<b>이메일</b>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b>홈페이지</b> : <a href="http://hannawon.or.kr">http://hannawon.or.kr</a>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기자** : 오은숙, 김영현, 박은영, 박영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2	<b>원장 에세이</b>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4	<b>요양원소식</b> 한나요양원 이련일 저런일
6	<b>그린힐소식</b> 한나그린힐 이모 저모
8	<b>직원 글</b>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9	<b>고 임택진 이사님을 추모하며</b>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
10	<b>좋은 이웃</b> 정성껏 방문해주신 분들
12	<b>얼린정보</b> 건강한 뇌를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
13	<b>행사 이벤트</b> 믿음으로 하나 된 성경학교
14	<b>도움의 손길</b> 사랑과 나눔, 정성과 보람
16	<b>결산공고</b>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어르신들을 격려하며

연재 예고 :

겨울호-어르신들을 사랑하며



원장 박 양 조

**어르신** 들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격려를 받으셔야 한다. 육신적으로는 식사를 잘 하셔서 건강하셔야 하고, 정신적으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생활하셔야 하며,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를 사모하셔야 한다.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연세가 드셔서 회개할 기회가 적기도 하지만, 특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시기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시설에서는 신앙생활을 자율에 맡기면서도 권고하고 있다.

우리 한나원에는 시설 내에 부설교회가 있다. 예배실에서 매일 새벽기도회를 드리며, 주일에 주일예배와 찬양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교회에 다니지 못하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우리시설에 들어오셔서 지팡이나 워커를 사용하여 예배실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무척 좋아하신다. 또한 외부 교회에서 위로방문을 하면 방문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입소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단체로 방문 오면 무척 반가와 하며 방문자들이 모두 앞으로 나와 특별찬양을 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특별한 악기를 가지고 방문하여 특별한 연주를 해주어서 음악회에 오신 것처럼 기뻐하신다.



부활절 성찬예배



추수감사예배를 마치고 이사장님과 어르신들이 함께 기념촬영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일년동안 잘 지낸 것을 감사하며 텃밭과 축대 위에서 수확한 콩·배추·무우·호박 등을 상에 올려놓고 감사예배를 드린다.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부활절에는 촛불 새벽기도회를 드린다.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부활절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부활절 예배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달걀을 드린다. 또한 초신자에게는 세례식을 거행한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의롭게 되었음을 가리키며, 세례는 구원의 1단계인 것이다. 그다음 2단계는 성화의 단계로 평생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원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육신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자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곳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계 21:4) 곳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 하리로다”(사 40:28-31). 이 말씀보다 우리 어르신들을 격려하는 말씀은 없을 것이다.



광석교회 하늘소리 선교단



영락교회 올드보이 하모니카 연주단

# 한나요양원 이런일 ~ 저런일 ~



## 여주대, 동원대 사회복지 실습생들 ♪♪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라 실습하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케어면 케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상담이면 상담...

여기서 흘린 땀과 수고가 멋진 사회복지사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디서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희망이 되어주세요.

## 초지리 게이트볼 대회 참가요~

게이트볼 대회를 통해 인근마을 어르신들과 하나 되는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하는데 뜻이 있다고는 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숨길 수 없는 승부욕을 누가 말려~ 혼자만이 아닌 팀웍의 중요함도 느끼며 내 옆에 계신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 직원교육

인식의 전환과 기독교사회복지의 철학적인 주제로 미국 호프大 박 앤두류(박종옥)목사님의 교육이 있었어요. 인근 시설 직원들도 참석하고 다양한 토론과 질문이 이어지는 열띤 교육이었어요.

“나와 다르다고 wrong이 아니고 different다!” 라는 말씀이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합니다. 어르신들 더 열심히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 여름성경학교

“와! 신나는 여름성경학교다” 제3회 여름성경학교가 7/24~25일 이틀간 열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성경학교였는지 7월 한달동안 한나원이 들썩였답니다.

덥고 지치기 쉬운 여름이었지만 다양하고 즐거운 성경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한 직원들에게 행복이 만발한 시간이었어요.

직원 현황 (8월말 현재)	원장	총무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1	1	3	1	1	16	2	1	28

입주자 현황 (8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2명	66명	78명	6명	8명



# 한나그린힐의 이모 ~ 저모 ~



### 음악의 묘미에 빠져보세요~

하반기부터 음악치료 시간이 생겼어요, 외부강사 선생님과 함께 노래에 맞춰 신나게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걸 느끼신대요,, 이렇게 음악의 묘미겠죠?

### 한여름에 송편 빚어 보셨어요?

송편은 꼭 추석 때만 먹으란 법 없잖아요, 밤이랑 설탕이랑 완두콩이랑 준비해서 초록색, 분홍색 만두를 만들었어요, 한때 간식으로 아주 근사 했어요~.



### 충주호에서 술박물관까지...

그린힐을 떠나 그림 같은 충주호를 지나 중앙탐을 거쳐 술 박물관 관람까지... 모처럼의 나들이로 행복한 하루였어요^^





**우리 고장에 미술관이 생겼어요!**

이천의 명소 설봉공원에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이 개관됐어요.  
한국화의 거장 월전 장우성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성격의 미술관으로 고미술품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실습을 마쳤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어 했지만 금세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이모저모로 도와주고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어요.  
"실습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입주자 현황 (5월말 현재)	할아버지 14명	할머니 27명	계 41명	입주자 7명	퇴소자 4명
--------------------	-------------	------------	----------	-----------	-----------

직원 현황 (5월말 현재)	생활복지사 1	간호사 1	물리치료사 1	생활지도원 7	조리원 2	위생원 1	계 13
-------------------	------------	----------	------------	------------	----------	----------	---------

※ 원장, 사무국장은  
겸임.

##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그린힐 생활지도원 한동원

이곳에서 근무한지 벌써 15개월째, 4계절이 지나고 벌써 시원한 9월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그동안 어르신들과 생활하며 힘든 점도 있었지만 감사하며 좋은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은 약 23년 전에 한영제 이사장님이 복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요양원을 세우셨고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을 편히 쉬게 하시려고 모든 편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곳에는 적게는 70세부터 많게는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단순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나의 친아버지, 어머니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가와 이미에 많은 주름이 있으십니다. 그 주름은 많은 세월을 사셨고 그만큼 세월의 역경을 많이 겪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신 박OO할머니는 작은 물건을 옮겨주거나 부축을 하여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한집사가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자주하여서 송구하기도 하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OO 할아버지도 이곳에 오셔서 처음에는 잘 적응 하는 듯하다 밤에 할머니 방 창문을 열고 로비에서 배회하고 잠을 안 주무셔서 여러 할머니들과 직원들을 곤란하게 하여서 얼마 후에 이곳을 떠나셨지만 건강이 조금만 좋았어도 재미있게 이곳에서 같이 사실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매일아침 체조 후에 어르신들과 악수와 하이파이브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침대까지 가서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어느 날 소리 잘 지르기로 유명한 최OO어르신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여 어르신을 위해 기도를 드렸더니 고맙다는 말씀에 저도 마음이 몽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강하게만 생각되었던 분이 이렇게 약한 부분도 있구나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제가 섬기고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이곳에서가 아마도 마지막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의 몸이 약간 힘들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편안해 하십니다.

오늘도 저는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출근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

원장 박양조

지난 7월 29일에 우리 한나원의 이사님으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수고하셨던 임택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임 이사님은 교계와 신학교 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거의 매번 참석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셨으며 우리 한나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은 평안도 분으로 냉면을 좋아하셔서 이사회를 다른 데보다도 우래옥에서 하시기를 원하셨고 평양냉면을 잘 드셨습니다.

우리 한나원의 대표이사 한영제 장로님과는 기독교 서적 출판 일로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고 교류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사님은 저술에 재능이 많으셔서 신앙저작 전집, 장로회 정치해설, 신앙과 윤리, 신앙고백서 해설 외 50여 권의 저서가 있으며, 한 대표이사님이 운영하시는 기독교문사를 통하여 많이 출판하셨습니다.

이사님은 이북에 계실 때 황해도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시면서 저의 아버지(고 박만복 장로)를 아셔서 저는 이사님을 아버지처럼 존경하였고, 이사님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에 제62회(197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고 임택진 목사 장례식이 23년간 시무했던 청량리중앙교회에서 총회장(總會葬)으로 엄수되었습니다.

예배는 총회장 이광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서울동노회 전 노회장 한정원 목사의 기도와 서울동노회장 하용삼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님이 '참 성직자의 삶'을 제목으로 설교하셨으며,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약력소개, 증경총회장 김형태 목사의 조사, 증경총회장 김윤식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림인식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영과 육 사이에서 영을 추구하며 살았고, 신앙과 세속에서는 믿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신 분이셨다"고 고인을 소개하며, 우리도 세속을 따르지 않고 참 목회자로 살았던 고인의 뜻을 이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형태 목사님은 조사를 통해 "임 목사님은 신앙의 보수와 신학의 진보를 조화시킨 목회자이셨다"고 전제하고, "진리와 사랑,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수많은 설교와 글을 통해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셨다"고 추모하셨습니다.

임 이사님의 시신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 절차를 마친 후 의학 발전을 위해 서울대학 병원에 기증되었습니다.





# 정성껏 방문해 주신 모든

## ● 한나요양원



6/16 문영목 원장

약효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인술을 베푸시는 정신이지요!! 그래서인지 아픈 허리도 거뜬해 진답니다.



6/18 인양 갈보리교회

오랜만에 뵈는 부모님처럼 반가운 마음에 한나원 구석구석 정성들여 손봐주시고 더 해드릴 것 없어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따스함으로 남습니다.



6/23 서울고 14회 기독인회

청운의 꿈을 안고 뒹굴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어느덧 사회의 어른이 되어 든든한 동지요,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6/30 한울림 봉사회

처음 오셔서 낯설기도 하였지만 이내 내 부모님 살피듯 세심한 손길 손길이 큰 울림이 됩니다.

#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6월 ~ 2007년 8월



**7/14 이천시립 어린이 합창단**  
 더운 날씨였지만 최선을 다한 공연은 어른신들 마음에 시원한 기쁨을 주었어요, 작은 천사들 화이팅!



**7/24 부천제일교회 카포엘 찬양단**  
 여름성경학교 일정으로 카포엘 찬양단이 오셨어요. 신나는 기타반주에 맞춘 찬양으로 더욱 은혜스러운 여름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 ● 한나그린힐



### 6/26 진인선원 직원 견학팀

진인선원 실비요양원에서 직원들 견학팀이 오셨습니다. 함께 다과를 나누며 친교와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유익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도 견학갈게요~!

### 7/27 한국 청소년 자원봉사마을

여름방학인데 놀러가고 싶어도 참고 자원봉사로 보람을 찾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더운데 정말 수고 많았어요~



## 건강한 뇌를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

1. 나의 뇌를 신뢰하고 애정을 준다. 뇌는 주인하기 나름이다.
2. 산책한다. 뇌의 오감을 자극하는 데는 걷기가 최고다.
3. 계산기보다 암산을, 화투보다 바둑으로 뇌를 자극한다.
4. 새로운 취미나 공부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5. 예술적 취미활동과 여행으로 직관적 감성을 키운다.
6.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을 관리한다.
7. 이벤트나 선물로 좋은 기억이 뇌에 오래 남게 한다.
8.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좋아하는 새로운 일에 매진한다.
9. 충분한 수면, 규칙적 운동으로 뇌를 편안하게 해준다.
10. 보람을 느끼는 데서 행복을 찾는다. 업무 능률이 오른다.

뇌의 지능과 행복,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뇌를 알아야 행복해 진다고 한다. 첫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지만 8시간 이상 자는 것은 뇌기능을 둔화시킬 수 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한데 뇌에는 적어도 밥과 육류가 가장 좋은 보약이다. 셋째, 뇌를 지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운동으로 하루 20분정도 산책이나 빠른 속도로 걷기가 가장 좋다. 달리는 신생뉴런 성장호르몬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하므로 기억력과 행복감 증진에 좋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사로 깨끗한 뇌혈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넷째, 뇌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야 한다. 악기·댄스도 적절한 자극이며 중장년층이 서투른 솜씨로 자녀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뇌 자극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뇌를 자꾸 써서 퇴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독서·예술 등 반복적인 지적 활동을 멈춰서는 안된다. 언제나 밝은 생각과 적극적인 생활로 뇌를 격려해야 뇌의 퇴화 속도가 늦춰져 보다 행복한 장노년기를 보낼 수 있다.



## 믿음으로 하나 된 성경학교

생활복지사 김영현

무더운 날씨에 지루한 장마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찌지~' 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꼬던 개회식 날 아침, 해님은 숨어있었지만 다행히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요양원과 그린힐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니 정말 초등학생 입학식 날 같았습니다. 하얀 면티를 똑같이 입고 손과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2007년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이름을 지어 조 편성을 끝내고 이어서 기타 찬양팀인 '카포엘' 찬양단의 축하 공연으로 열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그 열기로 조별로 모여 팀 구호를 만들어 주제별 코스웍으로 이동했습니다. 쾌락 방을 시작하여 말씀 방, 죽음 방, 지옥 방, 사랑방, 천국 방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단숨에 거쳐 가며 경험해보았습니다.

'피곤 하실텐데...' 하고 염려하던 직원들을 놀라게 하실 양이었던지 둘째 날, 어르신들은 빠짐없이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어디서 보신이라도 하신 걸까?' 전 날보다 더욱 생기 있게 찬양과 율동을 하시는 모습에 벌써 지쳐있는 직원들을 숙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종이접기 선생님의 지도로 부채를 만들어 더위를 식혀가며,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세상으로 빠져들어 보았습니다.

배고팠던 탓인지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얼마나 고맙고 풍성해 보이던지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누가 모이라고 광고하지 않아도 어



느새 모두 조별로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련된 조별 장기자랑 발표회를 위해 팀별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결국 그 노력은 모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겁을 주던 구름도 어느새 걷히고 맑은 하늘을 보며 캠프화이어를 시작했습니다.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둥글게 손을 손을 잡고 미리 준비했던 우리의 죄가 씌어진 종이를 한분씩 돌아가며 모닥불에 던지고, 이어서 풍선을 높게 매달아서 상징처럼 우리의 소망을 올려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요양원과 그린힐 어르신들에게는 젊었을 때의 추억을 되새기며 활력을 되찾는 듯 보였고, 직원들에게는 함께 연합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제 어구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의 가슴에 사랑과 소망을 품게 해준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사랑과 나눔

(2007년 6월 ~ 2007년 8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 【후원금】

- 개인 -

**한나요양원** : 박양조(3회), 정기현, 이인식, 김종성, 최창선, 정하국(3회), 한동숙(3회), 차관영(3회), 오은숙(3회), 황인철, 남윤수, 신학철(2회), 박광례, 김숙정, 안태자(4회), 김재성(2회), 서상집, 김은하(3회), 김영란(3회), 김갑순(3회), 김정숙(3회), 이옥화(3회), 신연옥(3회), 손희라(3회), 김덕수(3회), 박영옥(3회), 백화점약국(3회), 최애심(3회), 임회환(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김영현(3회), 전주인(3회), 윤혜정(3회), 김영자(3회), 이선재(3회), 조미자(3회), 서상도, (주)한국필름(3회), 김형근, 이선재, 노동완, 삼성김옥현, 이상례, 박동기, 장경선

**그린힐** : 박양조(3회), 한동숙(3회), 박소연(3회), 신수영(3회), 이경자(3회), 전주인(3회), 이정분(3회), 김은수(3회), 한정현(3회), 박은영(3회), 한동원(3회), 박미진(3회), 김정숙, 조재호, 조춘자, 조복남(2회), 박덕자(2회), 김미숙(2회), 주연화(2회), 세민병원(2회),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단체 -

**한나요양원** : 동막교회(3회), 평강교회(3회), 평북노회사회부, 한나원교회, 평북노회남시찰회, 하이닉스반도체, 사)한노협(3회), 경노시연, 대한예수교장로회(4회), 평강교회(3회), (주)씨뿌리는사람들(3회), (주)브이텍(3회), 과천교회(4회), 신성교회, 이마트이천점,

## 【지로후원】

이규원(3회), 김창운(2회), 이학우, 한국내과, 노명준, 윤홍진, 박병숙(3회), 김유향, 김병혁

## 【후원물품】

**한나요양원** : 곽순영, 정승준, 이정분, 한영제, 장호원상회, 이정연, 이천실험(2회), 청송유통, 대상(주), 문영목, 안양갈보리교회, 이용녀, 서재원, 하이닉스, 생활체육협의회의, 신성교회,

# 정성과 보람

##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전주인, 원진산업, 장안카센타(3회), 엄순이, 이옥화, 이천시립 어린이합창단, 임금님쌀밥집, 이천시립 어린이집, 부천 제일감리교회 카포엘찬양단, 과천교회, 김경현, 한울타리농원, 뚜레쥬르 하이닉스점(매일), 무명(2회)

**그린힐** : 향기로운집, 이재원, 김영복, 안남석, 백준호, 김명자, 요한, 이민우, 이정분, 한영제, 백순이, 박우정, 이영상, 이상두, 조복남, 강부임, 오성수, 이영숙, 이상윤, 양슬문, 홍원택, 전병언, 마동범, 김경재, 이찬호, 우문식, 김범술, 서재원, 이영순, 황월순, 황정윤, 조응신, 임권

###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 효양중(20회), 효양고(12회), 이천고(5회), 대월중(11회), 송정중(2회), 이천중(12회), 설봉중(2회), 탄금중, 백사중, 양정여중(3회), 양정여고(7회), 장호원고(2회), 제일고(7회), 제일중, 신하초교, 중앙교회(목욕 3회), 대월사랑회(목욕 3회), 호스피스(목욕 3회), 관고동부녀회(목욕 3회), 이천신협수지회(3회), 발사랑봉사(2회), 영광교회(3회), 한국청소년봉사마을, 한울림봉사회, 조승우헤어, (주)대상(5회), 하이닉스(3회), 삼성전기(2회), 한국도로공사, 기독교복음선교회, 최정순(목욕 2회), 조명순(목욕 9회), 문영목, 과천교회

**그린힐** : 이천중앙교회, 신흥교회(목욕 2회), 충일교회(목욕 2회), 장제금(목욕2회), 고주완(5회), 최정숙(3회), 신미래(6회), 전영희, 조은혜, 김은혜, 이예령, 조혜영, 이천고등학교, 한신진, 김영도

### 짧은 뉴스

- \* **수고하셨습니다!** - 조리원 지선화 선생님이 7월 30일 퇴사 하셨습니다.
- \* **환영합니다!** - 조리원 서영도 선생님이 8월 1일 입사하셨습니다.
- \* **직원교육** - 6/4 오은숙, 박은영 : 자원봉사 인증요원교육  
7/11 김경현, 박은영 :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8/3 한동숙, 박은영, 오은숙, 김정숙 : '어르신 등급판정 교육'  
8/27 김정숙 외 12명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워크샵



##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2007. 01. 01 ~ 2007. 06. 30)

이천 하나원 (법인)			
수 입		사 용	
계	39,457,499	계	39,457,499
전년도 이월금	21,197,499	퇴직적립금	252,794
지정후원금	500,000	전출금	12,000,000
민간단체	3,100,000	기관운영비	390,000
		제세공과금	11,977,800
법인임원	1,600,000	시설비	2,422,200
지역사회	9,000,000	수용비및수수료	26,000
개인,기타	4,060,000	시설장비유지비	0
		회의비	860,000
		기타후생경비	0
		자산취득비	0
		차기이월금	11,528,795

하나 요양원 (시설)			
수 입		사 용	
계	64,357,911	계	64,375,911
전년도이월금	5,647,010	프로그램비	4,239,880
지정후원금	25,450,000	영양간식비	3,087,850
개인,기타	22,064,571	난방연료비	7,673,500
민간단체	2,260,000	심리재활비	300,000
지역사회	2,954,330	의료재활비	760,000
법인전입금	6,000,000	수용경비	2,201,730
		공공요금	2,822,830
		기관운영비	968,000
		제세공과금	3,011,700
		후생경비	11,000
		회의비	250,000
		여 비	152,700
		시설유지비	2,457,850
		자산취득비	2,937,500
		수용비및수수료	5,513,880
		시설비	250,000
		지정후원금	10,110,500
		차기이월금	17,626,961

## 2007년 상반기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수입물품	수 량	사 용 내 역
과일류	138상자	간식으로 사용
음료수	116팩	간식 및 프로그램
떡	57말	간식으로 사용
다과류	37개	간식 및 프로그램
차류	36곽	어르신 및 프로그램
육류	104kg	주방에서 사용
야채류	422kg	"
쌀	52kg	"
김치	30kg	"
장류	512개	"
두부	11판	"
가공식품	2,649	"
계란	20판	"
불고기, 잡채	50인분	석식으로 제공

수입물품	수 량	사 용 내 역
의약품	5종류	진료실에서 사용
세제	26통	세탁실에서 사용
화장지	1540롤	전00어르신 외 지급
의류	86벌	임00어르신 외 지급
동내의	79벌	배00어르신 외 지급
양말세트	60개	김00어르신 외 지급
염색약	2박스(80개)	김00어르신 외 지급
직화냄비	2개	주방에서 사용
머플러	50장	김00어르신 외 지급
지팡이	40개	최00어르신 외 지급
난화분	2개	사무실
주유권	14매	난방용으로 사용
농산물상품권	16매	간식구입
LPG가스	1동	주방에서 사용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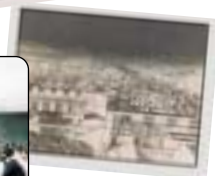
평양장대현교회 영배당 준공



## 평양장대현교회 예배당 준공

■ 체험학습장 ■ 사무실

■ 준공감사예배 : 2007년 9월 20일(목)



기획전시회

## 옛 사진에서 읽는 새로운 역사

■ 일시 : 2007년 9월 3일-12월 31일

주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후원 : 한국박물관협회 / 2007년 국무총리복권위원회복권기금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박물관협의회



THE KOREA CHURCH HISTORY MUSEU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1리 474-2  
Tel : 031-632-1391, 1392(Fax)  
www.kchmuseum.org

## ♥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방문감사예배 : (설교), 기도, 특송, 봉사

기술봉사 : 목욕, 치료, 원예, 이·미용 등

노력봉사 : 기관단체, 학생, 가족, 개인



여름이 끝나면 파아란 가을 하늘에 불타듯 빨강게 피는 정열의 꽃 사루비아. 꽃 끝에서 달콤한 꿀이 나와 어렸을 때 꽃을 따서 빨아먹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